



뉴스의 인물 ①

제2대 광주과학기술원장 金孝根 박사

졸업생 활용 벤처기업 창업 적극 권장

21세기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아래 지난 95년 개원한 광주과학기술원은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원으로 정보통신공학 등 5개 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2대 원장으로 취임한 김효근박사는 “21세기 정보화·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엔대학 부설 연구소를 유치하고 세계의 유수대학과 인적 교류 및 공동연구로 광주과기원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히고 있다.

장소 : 과기처 기자실
일자 : 2월 3일 (화) 오전 11시

■ 바쁘신 중에도 「과학과 기술」지를 위해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대 원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광주과기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광주과학기술원(K-JIST)은 21세기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지난 95년 3월 개원했습니다.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미래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할 첨단분야로 꼽히고 있는 정보통신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기전공학과, 환경공학과, 생명과학과를 비롯한 5개 학과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연구중심 대학원으로 육성

■ 광주과기원이 개원한지 3년여가 지났는데 그간의 성과로는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97년에는 초고속광네트워크연구센터가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한국과학재단이 선정한 '97 우수공학연구센터(ERC)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국내 이공계대학중 광주과기원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광섬유인출기를 활용하여 차세대 통신망인 광섬유 개발과 국내 업계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돼 국제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가장 빠른 PC통신 속도의 3천만배에 해당하는 광전송 및 신호 처리기술이 기간망에서 가능하게 되어 국내에 초고속광네트워크 관련사업의 경쟁력을 확

보하는데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원은 97년 12월 31일 현재 연구과제 총 2백81건과 연구계약고 1백93억원을 수행 완료했거나 수행 중이고, 산업재산권(특허)출원도 16건에 이르며, 삼성전자 및 금호그룹 등과 50여건에 달하는 산학협동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내에 '금호생명환경과학연구소', '금호정보통신연구소', '삼성환경과학연구소' (98년 8월 완공예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가공기술지원센터', 'LG과학도서관' 등의 산학협동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유엔대학 부설연구소 유치계획

■ 21세기의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수행기 위해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첨단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수한 업적을 가진 중견교수와 함께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겸비한 소장교수를 적극 영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명 석학들을 초빙하고 우수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첨단기술을 연구하는 공과대학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1세기 정보화·국제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유엔대학 부설 연구소를 유치하고 세계 우수대학과의 인적 교류 및 공동 연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안으로는 산·학·연 협동연구체제 구축에도 힘써 나갈 작정입니다.

■ 우수 교수와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라 하셨는데, 이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은 임용방법을 효율화해서 연중 상시 초빙할 수 있는 교원 확보체제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바로 전임강사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력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연구집단(Critical Mass)을 형성하기 위해 특채를 통한 중진교수 유치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른 연구기관과 신입 교수 지원도 차별화해 '연구착수지원제도'를 만들고, 사택 지원 등 각종 복지

대책도 마련할 생각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생 전원에 대한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기숙사 제공, 박사과정 진학시 병역특례혜택 부여, 영어강의 진행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 서울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탓에 겪는 어려움같은 것은 없지요.

지난 3년간 장족의 발전을 거두었음에도 지방에 있어 서인지 홍보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지방대학이 최근 기울이고 있는 활성화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최신 자료를 수록하고, 필요시 방문 설명회를 개최하며, 국내외 신문, 방송 등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 등을 대폭 강화하는 등 국내외 홍보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캠퍼스내 연구장비 공동활용 추진

■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사회를 위해 계획하고 계신 일은 없으신지요.

당연히 지역사회의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해야겠지요. 우선 첨단과학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민간연구소 및 국책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졸업생을 활용한 벤처기업 창업도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이고, 97년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통상부 지원을 받은 테크노파크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법인설립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캠퍼스내 연구장비 및 시설의 공동활용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지역정보화의 중추적 역할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①②

송해영<본지 객원기자>

김호근원장(62세)은 1957년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64년 미국 버지니아대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80년부터 15년간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교수생활을 하며 레이저 핵융합 연구를 주도해 왔다.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김원장은 '95년 귀국한 뒤 금호정보통신연구소 소장을 거쳐 광주파기원의 창립멤버로 참여했으며, '96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교수로 재직중에 있고, 지난해 11월 광주과학기술원 2대 원장에 취임했다.